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자신과 같은 사람을 못 만나면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0월 7일)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포교원·수좌회 손잡고 禪명상 대중화 나선다

조계종 11월 6일 '참선입문' 개발공청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열풍에 대응해 조계종단 차원의 참선 대중화가 추진된다. 일반인들도 접근가능한 간화선 교재, 입문 프로그램을 비롯해 재가지도자와 수좌 스님들과 연계한 지역 수행전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의정)는 11월 6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신도 참선 입문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은 위빠사나, 로종, MBSR 등 불교명상에 대한 일반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도 정작 대표 수행인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자 2005년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당시 지도인력 양성까지 나섰지만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이에 올해 6월 조계종 포교원과 전국선원수좌회가 힘을 합쳐 조계종 신도참선 입문프로그램 연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전법 포교방안을 연구해 왔다.

지난 6월부터 프로그램 개발
포교 · 수행 현장 목소리 경청
사찰 전법 콘텐츠 제공 계획
간화선 · 명상 접목 생활선 추구

참선전법위로 사업 연속성을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선 전법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전법포교도 결국 수행과 함께 가야하기에 그 중심인 선수행에 대한 입문 과정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도 "외형적 불사 외에도 간화선 입문을 이끄는 교재와 프로그램 등이 나와야 많은 포교를 할 수 있다. 선과 명상을 어떻게 접목하고 또 융합해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희승 연구실무위원(불교인재원 생활참선 교수)은 2005년 이후 대중화 사업이 중단된 원인을 집행부 교체 등에서 찾고 행정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박 위원은 "선수행에 대한 입문교재와 프로그램과 지도인력 양성이 다시금 이뤄져야 한다. 종무행정 영역에서 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참선전법위원회를 구성해 실참 수행자와 현장 전법사, 학자 등이 참여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간화선과 현대과학, 의학 등과 연계한 연구 성과도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립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상 접목해 인식 개선 필요

수좌회 부의장 원근 스님은 "생활 속 선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체조, 댄스, 스포츠 활동 중에도 할 수 있는 스포츠의료선(禪), 차와 음식을 통한 선,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선 등 현재 명상과 접목해 선도 현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도자 양성의 지적도 나왔다. 前봉암사 입승 혜우 스님은 "현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간화선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선지식의 부재가 초심자 수행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명상마을에서 이런 방식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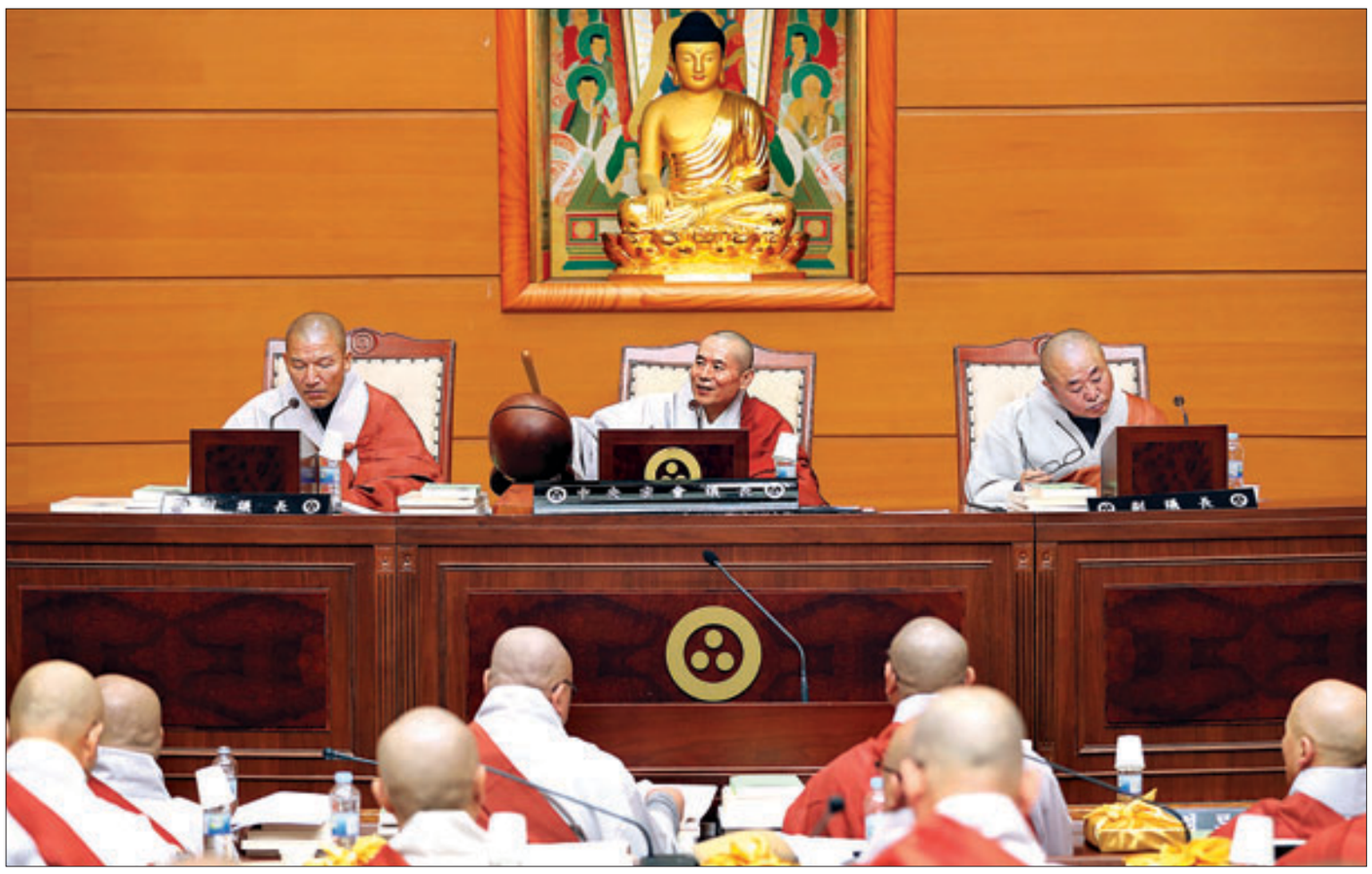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재가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인식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준영 명상나눔협동조합 이사장은 "선수행에서도 일반인들을 이끌 수 있는 재가불자들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인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근 간화선연구소장은 "조사선의 경우 조사어록을 공부하고 이를 설명해주는 중간단계의 지도자가 가능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화두를 들게 하는 간화선은 중간단계 지도자의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현대인들이 화두를 어떻게 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무엇보다 선수행 실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생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은 "체험을 해야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원인과 결과가 한 집안 소식이 된다"며 "문사수를 통해 법문을 듣고, 참구하는 체험의 장이 지역사찰 외에도 곳곳에서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과 포교단체, 스님과 수행지도자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사람의 향기로 대중들을 지도하고 있는 해남 미황사 금강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선수행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골자로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기대를 가져본다"며 "한국불교 정체성에 기반해 실참수행을 통해 대중을 교화하는데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참선입문프로그램 연구실무위원회는 참선입문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선원수좌회와 현장 지도인력 양성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개원종회서는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사진 가운데), 수석부의장에 장명 스님(오른쪽), 차석부의장에 주경 스님(왼쪽)을 선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개원

11월 9일 개원종회 및 정기회…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

수석 · 차석 부의장엔
장명 · 주경 스님 선출
사무처장 호산 스님 임명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제17대 중앙종회 개원종회인 제213회 정기회서 4선의원인 범해 스님을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는 재적의원 7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종회 운영규칙에 따라 최다선(5선)의원인 초격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았다.

의장 범해 스님은 "부족함 많은 소납에게 제17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중앙종회는 통합종단 이래로 지금까지 조계종 대의기구로서 종단 안정과 발전, 화합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잘 해왔다. 앞으로 종단과 집행부의 여러 사안을 살피고,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올바른 승가상 구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범해 스님은 또한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제가 그런 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종도들이 17대 종회를 원만한 종회로 인식하고, 종단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의원스님들께서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수석부의장과 차석부의장에 각각 4선의원인 장명 스님과 주경 스님을 선출했다. 중앙종회 사무를 총괄할 사무처장에는 16대 종회서 사무처장을 역임한 호산 스님을 다시 임명했다.

이어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통해 총무분과 각림 스님(3선), 교육분과 비구니 상덕 스님(재선), 포교분과 정현 스님(재선), 사회분과 무관 스님(4선), 재정분과 등운 스님(3선), 호법분과 제정 스님(3선), 법제분과 만당 스님(3선)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각 분과별로는 위원장 포함 총무분과 15명, 교육분과 10명, 포교분과 9명, 사회분과 9명, 재정분과 14명, 호법분과 10명, 법제분과 11명을 배정했다.

각종 추천 · 선출직 등의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심우 스님(3선)이, 위원으로는 성행 · 현민 · 일감 · 상덕 · 태효 · 자공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불기2562(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 특별분담사찰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다. 다만 중앙종회는 논의를 통해 교구본사에 대한 감사는 제외키로 결의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정기회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서 제17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거행하고, 종단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17대 중앙종회는 종단의 여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원로대덕 스님들의 고견을 금언으로 받들고, 사부대중의 중의를 경청해 종단의 질서와 결속, 화합과 안정에 주력해야할 것"이라며 "중앙종회는 종단의 중추적인 기구이고 소임이 막중하니 종회의원스님들은 전력을 다해 종단을 반석위에 우뚝 안치해 주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7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선서 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개원사에서 "오늘 제17대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이 종단의 변화와 혁신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 종도와 종단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걷게 될 중앙종회의원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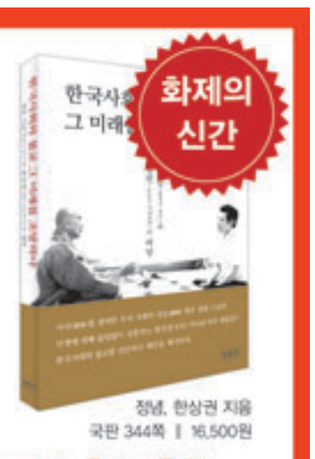
원행 스님은 이어 "종회의원스님들께서는 우리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산적한 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저는 승가의 위의를 확립하고 승가공동체 정신회복을 위한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여러분 역시 지혜를 모아 제36대 총무원과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

정념 스님 | 월정사 주지 | 과 한상권 | KBS 아나운서 | 의 대담





정념, 한상권 지음
국판 344쪽 | 16,500원

"이대로 가면 한국불교는 10년 내에 제3의 종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한국불교! 위기의 한국사회!

통찰력과 지혜를 겸비한 퇴우 정념 스님과 한상권 KBS 아나운서의 대담집, 정념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승으로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전반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가 처절한 위기의식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다.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